

누가복음 공부 - 22.3 부 (누가복음 19:11-27)

누가복음 19:11-27 (귀인과 열 므나의 비유)

2.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

귀인(예수님)은 여행을 떠나실 즈음에 자신의 제자들 (종)에게 자신의 사업을 대신 하라고 사업자본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중국에 아버지께로 돌아 가서, 왕권을 받으실 것을 예상하셨다. 다시금 자신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귀향하시면 신실한 종들과 불성실한 종들을 다루실 것이다. 자신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대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나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면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1)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라기 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미래다.

2)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명령하신 사업들을 감당하고 그분께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최종회계보고를 드려야 한다.

3) 주인(예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점은, 모든 악조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종들이 공개적으로 용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신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는가에 있다. 종들은 거주민 대부분이 자신들의 주인을 적대시하며 그분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거부하는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4) 주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려면 겸손함이 종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다. 성실한 종들은 주인께, “여기에 당신의 므나가 이익을 남겼나이다”라고 말한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익을 남겼나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5) 종들에게 그 신실함에 대해 주신 보상은 보다 더 큰 책임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이다. 열므나를 받은 종이 물질적으로 더 큰 보상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유급휴가, 휴양지 별장 선물, 무료 해외 관광 등등...). 되려 그는 열 도시들을 다스리는 책임을 권위와 함께 부여 받았던 것이다.

6) 주신 선물들을 그저 보존만 하고 있다는 것은 주인께 대한 배신과 다를 바 없다. 한 므나를 단지 보관만 했었던 종을 해고 시킨 것이 아니라, “불충성하다”고 심판하셨다. 결국 그에게 주셨던 선물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

7) 용기도 없으며 불성실한 종은 주인께 대한 편견마저 가지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주인의 올바른 성품과 개성마저도 그릇되게 인지해 버린 것이다.

8) 주인은 그러한 종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릇된 판단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며 그의 그릇된 편견과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종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9) 주인께 완악하고, 매우 적대적이며 의도적으로 반항을 하였던 대부분의 거주민들의 행위를 주인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 주인의 종들은 주인의 모든 적대적 원수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린 주인의 선포를 들었으나, 청중들은 그들이 당한 결과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심판에 따라 그들이 당한 결과를 밝히지 않으셨다).

10)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사업자금들을 거저 주신, 자비가 풍성한 주인이시다. 자신이 귀향하실 때 종들에게 반드시 선물들의 사용에 대한 회계를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풍성히 선물을 주시며 그것들을 신실하게 선물들을 사용하였기에 더 크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며, 불충성한 종을 해고하거나, 벌 내리지를 않으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원수들에게 내린 심판마저도 당장 이행하지 않으셨다.